

나주 혁신도시 지역 기여도 ‘흡족’...지역인재 채용 ‘미흡’

17개 기관 2년간 지역 기업 제품 구매 1조7000억 넘어 지역 의무채용 비율 매년 증가에도 전국 평균에 못미쳐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지역 기여도가 전국 12개 혁신도시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이는 국내 최대 공기업 한국전력 등 나주 혁신도시 17개 기관이 지역 기업으로부터 2년간 사들인 금액이 1조7000억원을 넘기면서 이뤄낸 성과이다.

하지만 지역인재를 의무 채용한 비율은 통계를 낸 4년 동안 전국 혁신도시 평균 채용률을 밑돌았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지역 기여도’ 결과에 담겼다.

허영 의원은 혁신도시법 시행 15주년을 맞아 2020~2021년 2년간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역산업 육성’ ‘지역인재 육성’ ‘지역주민 지원’ ‘유관기관

협력’ ‘지역 우선구매’ 등 5개 부문에서 어떤 노력과 기여를 했는지 점검했다.

우선 이들 5개 부문 사업비를 모두 합해 비교했을 때 나주 혁신도시의 지역 기여도가 12개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많았다.

최근 2년간 나주 혁신도시 사업비는 2조2180억원으로, 전국 10개 도시의 사업비 6조5640억원의 33.8% 비중을 차지했다.

나주에 이어서는 경남 1조8750억원(28.6%), 대구 5590억원(8.5%), 전북 3950억원(6.0%) 등 순으로 많았다.

나주 혁신도시 지역 기여도가 월등하게 높은 건 한국전력을 주축으로 한 이전기관들의 지역 우선구매액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5개 부문에 대한 한국전력의 지역기여 사업비는 1조9080억원으로, 전국 이전기관 154곳 가운데가

장 많았다.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17개 기관 가운데 한전 KPS·한전KDN 등 자회사를 빼고도 사업비 비중은 전체의 86%에 달한다.

전국 12개 도시에 있는 이전기관 가운데 한전에 이어서는 경남 진주 혁신도시에 있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비가 1조990억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나주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의 지역 우선 구매액은 1조7340억원으로, 전체 지역기여 사업비의 78.2%를 차지했다.

나주 우선구매 실적은 2위인 전북(1870억원), 경북(1550억원), 강원(1260억원) 등에 비해 10배 가량 많다.

지역 우선구매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 부문에 대한 지역 기여도를 살펴보면 나주 혁신도시는 상위권에 들긴 했지만 1위와 큰 격차를 나타냈다.

최근 2년간 이전기관들이 연관 기업을 지역에 유치하거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지역산업 육성’ 부문에서는 경남 혁신도시 사업비가 1조6870억원으로, 나주 혁신도시(3550억원)보다 5배 가까이 많

았다. ‘지역인재 육성’ 사업비 1위는 대구 혁신도시로, 나주는 이의 3분의 1 수준도 되지 않았다.

지역인재 육성사업은 지역 대학과 연계한 교육과 장학 사업 등이 포함된다. 지난 2년 동안 대구 혁신도시가 358억원으로 가장 많은 사업비를 집행했고, 경북(151억원), 나주(96억원), 부산(91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혁신도시가 들어선 지역에 문화체육시설을 건립하고 이전기관들의 시설을 개방하는 ‘지역주민 지원’ 사업비는 충남 275억원, 부산 248억원, 경북 192억원, 경남 159억원, 나주 130억원 순으로 많았다.

마지막으로 ‘유관기관 협력’ 사업비는 나주 혁신도시가 170억원을 집행했는데, 1위인 경남은 이의 2.5배 수준인 440억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에 이어 대구(420억원), 경북(400억원), 전북(210억원), 충남(180억원) 등 순이었다.

유관기관 협력사업은 지자체·기업·대학과 공동 연구를 추진하거나 협의회를 운영하는 사례를 말한

다. 한편 나주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통계를 낸 지난 4년 동안 전국 평균을 단 한 해도 넘기지 못했다.

나주 혁신도시 13개 기관들이 지역 의무채용 대상 가운데 광주·전남 출신을 뽑은 비율은 21.1%(2018년)→24.6%(2019년)→27.0%(2020년)→30.7%(2021년) 등으로 증가 추세지만 해마다 전국 평균 채용률을 밑돌았다.

전국 평균 채용률은 2018년 23.4%, 2019년 25.9%, 2020년 28.6%, 2021년 35.2% 등으로 늘었다.

허영 의원은 “혁신도시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는 온갖 예외조항에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며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발전 기여 관련 조항이 담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018년에 시행된 이래 5년이나 돼가는데, 세부 사업 관리와 평가는 아직도 결구마 수준이다. 국토부는 혁신도시의 신속한 안착을 위한 제제와 혜택을 고려한 제도 개선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은행, 광주·전남 지자체 금고지기 위상 다져

목포시 1금고 전담은행 재선정...2025년까지 3700억 운영 해상케이블갠 신설 100억 출자 등 자본 역외유출 방지 노력

지난 2020년 59년 만에 목포시 1금고를 획득한 광주은행이 이번에도 1금고 담당 자격을 이어간다. 광주은행은 목포시 1금고 전담 은행에 재선정돼 오는 2025년까지 3년간 목포시 일반회계 및 통합 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3700억원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광주은행은 지난 2020년 시중은행이 맡아온 목포시 1금고를 59년 만에 처음 유지하기도 했다.

그동안 광주은행은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을 펼쳐왔다.

광주은행은 목포해상케이블갠 신설 사업에 100

억원을 출자하고, 목포대양산단에 219억원을 지원했다. 지역 소비를 늘리기 위한 지역화폐 ‘목포사랑 체크카드’를 출시하는 등 지역 자금 재투자를 위해 노력해왔다.

송중욱 은행장은 “광주은행을 믿고 신뢰하며 지역 살림을 맡겨준 목포시와 지역민에 감사의 전한다”며 “전남·광주 대표은행으로서 금고지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지역민의 형세로 조성된 지역의 공공자금이 역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지역 중소기업과 중서민 금융지원으로 선순환함으로써 ‘지역과 상생, 지역민과 동행’의 가치를 실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광주은행은 현재 광주시 금고와 광주 광산·동·서·남·북구 5개 구 금고 전담은행을 맡고 있다.

전남에서는 목포를 포함한 5개 시(광양·나주·목포·순천·여수) 모든 금고를 석권하며 지역 대표은행의 입지를 다졌다.

광주은행은 앞으로 진행될 광주 광산구와 서구, 북구 금고 만기 선정에서도 전남 은행을 지킬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광주은행은 해마다 당기순이익의 10% 이상을 사회공헌에 쓰고 있으며, 지난달 말 기준 코로나19로 손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실시한 대출지원은 3만3742건, 1조4699억원에 이른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효성중, 재생에너지 융합형 수소엔진 발전 사업 본격화

한국동서발전과 실증·사업 개발 협력 MOU 체결

효성중공업(주)은 지난 21일 서울 마포 본사에서 효성중공업(주) 이만섭 기전 PU장과 한국동서발전(주) 조상기 사업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엔진 발전기 실증 및 사업 개발 협력 관련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를 통해 효성중공업과 한국동서발전은 태양광발전과 수소엔진발전, ESS(에너지 저장장치), 수전해 설비의 장점을 유기적으로 접목시킨 분산전원 무탄소 발전 시스템 실증 및 사업 개발을 공동으로 수행한다.

특히 효성중공업이 사업화 중인 수소엔진 발전기를 재생에너지와 융합해 재생에너지의 출력 변동성을 보완하고, 전력계통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유연성 자원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효성중공업과 한국동서발전이 개발할 재생에너지 융합형 발전 모델은 동일 사업부 규모의 수소 연료전지에 비해 최대 발전량이 4배나 높아지고,

1.3배의 탄소 감축이 가능하다. 또 해당 모델에 수전해설비를 접목해 그린수소를 경제적으로 생산할 수 있으며 동시에 재생에너지의 출력을 효과적으로 제어해 효율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

이만섭 효성중공업 기전 PU장은 “최근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비전 아래 기존 화석연료에서 무탄소 연료인 수소, 암모니아 등으로 전환하는 무탄소 전원 개발이 화두”라며 “한국동서발전의 발전소 운영 경험과 당사의 원천 기술력을 접목하여 수소엔진 발전기와 전력설비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만섭(오른쪽) 효성중공업 기전 PU장이 조상기 한국동서발전 사업부사장과 MOU 체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편, 효성중공업은 오는 2023년 완공 목표로 울산 용연공장 부지에 단일 공장으로 연산 1만3000t 규모의 수소 액화 플랜트를 건립 중이다. 이와 함께 울산, 광양, 거제, 경산지역에 액체수소 충전소 설립을 시작으로 대형 액체수소 충전소 건립을 확대할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부담된다”

소상공인 500곳 중 72.4% 답해...“적정하다” 7.4% “수수료 인상 땀 제품 가격 올릴 것” 소비자만 피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 대다수가 수수료와 광고료 등 비용이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와 과도한 비용 부담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커진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2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플랫폼 공정화 관련 소상공인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업체 10곳 중 7곳(72.4%)은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및 광고료 등 비용 수준에 대해 부담 된다고 응답했다. 반면, 비용이 적정하다는 응답은 7.4%에 불과했다.

배달앱에서 부담하는 배달비와 프로모션 비용 수준에 대한 질문도 ‘비용이 부담 된다’(72.8%)라는 응답이 ‘적정하다’(7.4%)는 의견보다 약 9.8배 많았다.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온라인 플랫폼이 수수료 및 광고료를 인상할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서는 ▲제품·서비스 가격을 올린다(37.6%) ▲대응 방법이 없다(34.0%) ▲유사 플랫폼으로 옮긴다(17.6%) 순으로 답변했다.

온라인 플랫폼이 수수료 등을 인상하면 대다수가 가격을 올리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응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결국 가격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온라인 플랫폼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호하는 방안(복수응답)은 ▲입점업체 규모 및 매출액에 따른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41.0%) ▲표준계약서 도입을 통한 수수료율

사전 합의(31.0%) ▲단체협상권 부여를 통한 수수료율 비용 협상(30.6%) 등으로 나타났다.

응답 업체 10곳 중 6곳(59.2%)은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수수료 부과기준, 판매대금 정산방식 등의 내용을 포함한 표준계약서를 작성·교부하는 방안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화를 위해 시급한 조치(복수응답)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40.2%)과 입점업체 거래조건 등 정보 공개 제도화(40.2%) 등이 많았다.

이밖에 ▲입점업체에 온라인 플랫폼 대상 단체협상권 부여(24.2%) ▲자사 가맹 제품 및 서비스 우대 제한(16.4%) ▲플랫폼 상생지수 도입(16.4%) ▲협력 이익공유제 기반 마련(11.6%)의 응답이 이어졌다.

향후 확대되길 바라는 온라인 플랫폼과의 상생협력 분야로는 ▲영세업체 비용 지원(40.2%) ▲판로지원 확대(35.4%) ▲마케팅 교육(16%) ▲디지털역량 강화(8.2%) 순으로 나타났다.

추문갑 중소기업정책본부장은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입점 소상공인들이 플랫폼의 불공정행위와 과도한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많아졌다”며 “최근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가 재조명되면서,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중기 R&D 기획 역량 강화 지원

광주·전남중기청 참여기업 모집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개발(R&D) 기획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했지만, R&D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해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고 투자IR·TIPS* 연계 등으로 자생력을 갖추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 운영은 창업기획자 및 TIPS 운영사로 직접 투자가 가능한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담당한다.

이현조 중기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기획역량 강화와 기술개발(R&D) 지원사업 추천으로 선정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

겠다”고 밝혔다. 사업 신청은 이달 24일부터 28일까지 가능하며, 이메일(2yunhee@ccei.kr)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남중기청 및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062-364-9140.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로또복권 (제1038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7	16	24	27	37	44	2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1,627,457,225	15
2	5개숫자+보너스숫자일치					52,839,521	77
3	5개 숫자일치					1,209,466	3,364
4	4개 숫자일치					50,000	154,690
5	3개 숫자일치					5,000	2,436,512

“광주 첨단·빛그린 산단 근로자 여러분 힘내세요”

산단공 ‘행복트럭’ 행사 열어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지난 21일 광주첨단국가산업단지과 빛그린산업단지에서 ‘산업단지 행복트럭’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국민 제안을 통해 선정된 국민 참여예산 사업으로 산단 기업인, 근로자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당일 오전 광주첨단산단 산단공 광주지역본부에서 근로자들에게 음료와 샌드위치 등을 제공, ESG활동의 일환으로 산단공 직원들이 키운 식물 나눔을 진행했다.

점심 시간에는 빛그린산단 근로자를 위해 입주기업인 ㈜한일카본에서 기부한 다과와 함께 커피음료를 제공했다.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참여하는 설문과 사연 이벤트도 진행해 선정될 경우 소속 기업에 추가로 커피트럭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 21일 광주 첨단산단과 빛그린산단에서 열린 ‘산업단지 행복트럭’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 관계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산단공 제공>

앞서 산단공은 지난 17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6개 산업단지 현장에 커피트럭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산업단지 행복트럭’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여러분의 행복한 웃음이 산업단지의 희망이니

다’를 슬로건으로 출근길과 점심식사 시간을 이용해 산단 주요 현장과 입주기업, 소방서 등 지원기관을 찾아 진행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